

제 5강 "피의 언약 (임마누엘 하나님)"

(마 1:23)

1. 임마누엘: 언약의 성취이자 복음의 핵심

- 1) 바울은 복음의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, 부활, 성령의 내주를 제시하며,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(임마누엘)의 성취라 설명한다.
- 2) 마1:23은 구약(사7:14)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며, 바울은 이를 "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"(갈4:4)고 해석한다.

2. 임마누엘 하나님과 '피의 언약'의 연결

- 1) 바울은 피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새 언약이라 강조한다(고전11:25, 히9:11-15).
- 2) "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"(히9:22)는 말씀처럼,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확증하는 언약의 표징이다.
- 3) 바울은 "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"(골1:27)고 선언하며, 이는 곧 구약의 임마누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.

3. 성육신: 바울신학에서의 임마누엘의 실체

- 1)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"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"(골1:15), "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"(골2:9)이라 하여, 성육신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실체를 선포한다.
- 2) 임마누엘의 실체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역사 가운데 임한 것이다.

4. 바울신학에서의 "함께하심" (Immanuel)의 적용

- 1) 바울은 "그리스도 안에서"란 표현을 통해 모든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강조한다.
- 2) 함께 죽고(롬6:6), 함께 살어나고(골2:12), 함께 앉히셨다(엡2:6)는 진술은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적 연합을 뜻한다.
- 3) 임마누엘의 축복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, 법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동행과 내주하심이다.

5. 바울신학적 관점에서 임마누엘의 현재적 의미

1) 성령의 내주:

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(롬8:9-11)을 통해,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

누엘 사역이 성령 안에서 지속된다고 본다.

2) 교회의 임재:

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(고전12:27)이며,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간다 (엡2:20-22). 이는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을 뜻한다.

3) 종말론적 임마누엘:

바울은 장차 “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”(살전4:17)는 약속을 강조하며, 완전한 임마누엘의 실현을 미래적 구원 안에서 본다.

Lecture 5: Pauline Theology of "Blood Covenant Immanuel God" (Matthew 1:23)

1. Immanuel: The Fulfillment of Covenant and the Core of the Gospel

- 1) Paul presents the incarnation, crucifixion, resurrection, and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as the climax of the gospel, thus fulfilling “God with us” (Immanuel).
- 2) Matthew 1:23 is the fulfillment of Isaiah 7:14. Paul interprets this as, “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, God sent forth His Son” (Gal 4:4).

2. Blood Covenant and Immanuel

- 1) Paul declares that the new covenant was established by the blood of Christ (1 Cor 11:25; Heb 9:11-15).
- 2) “Without the shedding of blood, there is no forgiveness” (Heb 9:22). Jesus’ blood guarantees the presence and salvation of God.
- 3) “Christ in you, the hope of glory” (Col 1:27) shows the realization of Immanuel through union with Christ.

3. Incarnation: The Substance of Immanuel in Paul’s Theology

- 1) Christ is “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” (Col 1:15), and “in Him all the fullness of Deity dwells bodily” (Col 2:9).

- 2) The incarnation is the visible manifestation of the invisible God, and the embodiment of Immanuel.

4. “With Us” in Paul’s Theology

- 1) “In Christ” is Paul’s signature phrase, emphasizing that believers are united with Christ in His death, resurrection, and ascension (Rom 6:6; Col 2:12; Eph 2:6).
- 2) This union is not merely emotional but covenantal and legal, showing the faithfulness of Immanuel God.

5. Present Reality of Immanuel in Pauline Theology

1)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:

“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, he does not belong to Him” (Rom 8:9).

2) Immanuel in the Church:

The Church is “the body of Christ” (1 Cor 12:27), and “a dwelling in which God lives” (Eph 2:22).

3) Eschatological Immanuel:

Paul affirms, “And so we will always be with the Lord”(1 Thess 4:17), pointing to the final and full realization of Immanuel.

제 5강: 피의 언약 – 임마누엘 하나님

1.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‘피의 언약’의 성취다.

- 1) 임마누엘(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)은 성육신 사건(마1:23, 요1:14)을 통해 실현되었다.
- 2) 바울은 이 사건을 "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"(갈4:4)로 설명하며,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본다.
- 3)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(롬5:9-11, 고후5:18-21).

2.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새 언약의 중심이시다.

- 1)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“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”(골1:15), “하나님의 본체”(빌2:6), “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”(골2:9)으로 고백한다.

- 2) 이는 곧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며, 임마누엘이 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.
- 3)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새 언약을 세우셨고(고전11:25)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게 되셨다(갈2:20).

3. 바울신학에서의 임마누엘은 ‘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’의 삶이다.

- 1) “그리스도 안에”라는 바울의 표현은 임마누엘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이다.
- 2) 함께 죽고(롬6:6), 함께 부활하고(엡2:6), 함께 앉히신다.
- 3)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, 우리와 동행하신다(롬8:9-11). 이는 구약의 “하나님이 함께 하신다”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언약으로 완성된 것이다.

4. 임마누엘의 하나님과의 ‘언약적 동행’은 성도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보장한다.

- 1) 하나님의 보호(롬8:31), 위로(고후1:3-5), 성령의 내주(고전3:16), 신령한 복(엡1:3), 영광스런 기업(엡1:11-14), 최후의 구원(롬8:30)
 - 2)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되 함께 영광을 누린다(롬8:17).
-

Lecture 5: Pauline Theology of “The Blood Covenant – Immanuel God”

1. Immanuel is the Fulfillment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God and Humanity.

- 1) “Immanuel” (God with us) was fulfilled through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(Matt 1:23, John 1:14).
- 2) Paul interprets this as: “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, God sent forth His Son” (Gal 4:4).
- 3) Jesus, as the Mediator of the New Covenant, reconciled us to God through His blood (Rom 5:9-11; 2 Cor 5:18-21).

2. Jesus Christ Is the Center of the New Covenant as the Immanuel God.

- 1) Paul declares Christ as “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” (Col 1:15), “in very nature God” (Phil 2:6), and “in Him all the fullness of Deity dwells bodily” (Col 2:9).
- 2) This reveals God dwelling among and within humanity, personified in Jesus.
- 3) Jesus established the New Covenant with His blood (1 Cor 11:25), and now indwells His people by the Spirit (Gal 2:20).

3. In Pauline Theology, Immanuel Is the Life of Those “In Christ.”

- 1) “In Christ” is Paul’s theological expression for the life lived in union with Immanuel:
- 2) Died with Him (Rom 6:6), raised with Him (Eph 2:6), seated with Him (Eph 2:6).
- 3) The Holy Spirit indwells believers, making God present within them (Rom 8:9–11).

This fulfills the Old Testament promise of “God with His people” in a new, eternal covenant.

4. The Covenant Fellowship with Immanuel Guarantees Spiritual Blessings:

- 1) God’s protection (Rom 8:31), comfort (2 Cor 1:3–5), indwelling Spirit (1 Cor 3:16), every spiritual blessing (Eph 1:3), glorious inheritance (Eph 1:11–14), and final salvation (Rom 8:30).
- 2) Believers suffer with Christ and are also glorified with Him (Rom 8:17).